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건강·생활지원)』 종합대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일본사무소)

목 차

Ⅰ. 지원체제의 충실

1. 돌봄활동 등의 추진 ····· 1
2. 전문직종(보건·의료·복지)의 인재확보 ····· 8
3. 지원자(支援者) 케어의 촉진 ····· 13

Ⅱ. 주거와 커뮤니티 관련 과제에 대한 대응

1. 가설주택과 커뮤니티 관련 과제에 대한 대응 ····· 14
2. 재해공영주택과 커뮤니티 관련 과제에 대한 대응 ···· 19

Ⅲ. '마음' 의 부흥

1. 마음의 케어 ····· 23
2. 삶의 보람 만들기 ····· 27
3. 「새로운 동북」 선도모델 사업의 활용 ····· 29

Ⅵ. 어린이에 대한 지원

1. 어린이에 대한 지원 ····· 32

Ⅴ. 정보기반의 공유

1. 이재민 데이터의 플랫폼화 ····· 35
2. 지원시책의 정보제공 ····· 36

※본문 중 2015년도 예산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임.

동일본대지진『이재민지원』종합대책

◇ 재난극복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현황」 보고('16.6월)에 이어 일본 부흥청(復興廳) 및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종합대책"의 각종 세부시책(50종)의 내용을 파악하여 국내 관련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Ⅰ. 지원체제의 충실

1. 돌봄 활동 등의 추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며 인프라의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도 약 23.4만명(2015년 12월 현재)이 피난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향후 주택 재건에 의한 재해 공영주택으로의 이전이 본격화하고, 이재민의 거주·생활지역의 분산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주택재건의 완료를 위한 시간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민들의 가설주택에서의 피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구 단계에 맞춰 이재민의 돌봄과 커뮤니티 형성의 지원에 대한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1) 이재민 돌봄활동 등의 강화

피난생활을 하는 이재민에 대한 돌봄과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이하, 「돌봄 등」이라 함) 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부흥 지원사업에서 배치된 '생활지원 상담원'에 의해 가설주택 약 6만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방문 등을 통한 소통, 상담, 가설주택에서의 주민간 교류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부흥지원 요원(復興支援員)의 일부가 지역 부흥활동의 지원과 더불어, 돌봄과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돌봄 등 활동'은 앞으로 주택재건에 의한 재해공영주택으로의 이전 등이 본격화하면 지역에서의 기존 자치회·커뮤니티와의 조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재해

공영주택으로의 이전이 진전됨에 따라 고령 이재민의 고립화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그와 함께 이재민이 분산됨으로서 '돌봄 등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주택재건을 기다리며 여전히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피난의 장기화에 따른 심신 케어의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부흥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돌봄 등 활동'의 강화 방안이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돌봄 활동 등의 이재민 지원활동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에서 실시해온 주요 시책들을 일원화한 「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을 창설하고, 이재민의 돌봄・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활지원 상담원의 확보를 도모하기로 한다.

또한 부흥지원요원(復興支援員)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의 돌봄 활동 등의 활용에 대해 충분하게 인식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주민의 돌봄과 케어를 일체화 시키는 '상담업무'가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사실을 요강 상 명확하게 하였다. 특히 원자력 재해로 인한 이재민 피난생활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후쿠시마현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불안, 피난자의 분산, 건강 상태의 악화 등 후쿠시마현 특유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후쿠시마 재생 촉진 교부금의 활용 등을 통해 상담 지원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돌봄 등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동 사업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긴급고용창출사업의 기금을 늘려 사업 실시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신규〉 **【대책 1】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의 창설**

○「피해자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으로 재해 자치단체에서의 「이재민의 돌봄・커뮤니티형성」과 「재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 지원한다. 피난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상담 지원과 고립 방지를 위한 돌봄 등 이재민의 일상생활의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 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 <부흥청>
[2015년도 예산 59.0억엔, 부흥특회]

〈확충〉**【대책2】 부흥지원요원(復興支援員)의 활용**

○ 「부흥지원요원 추진요강」의 일부를 개정해(2014년 12월), 부흥지원요원들이 실시하는 부흥에 따른 지역협력활동의 예로서 주민의 돌봄과 케어를 일원화해 실시하는 상담업무를 포함할 것을 명확화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부흥지원요원 추진요강의 일부 개정 <총무성>

〈연장〉**【대책 3】 지진 등 대응고용지원사업의 연장**

○ 이재민의 일시적인 고용의 확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에 의한 직접고용 또는 기업·NPO에의 위탁에 의한 고용을 창출하는 「지진 등 대응고용지원사업」에 대해, 긴급고용창출사업의 기금을 늘리고 사업 실시기간을 1년 연장한다.

※ 지진 등 대응고용지원사업 <후생 노동성>

[2015년 예산: 107억엔, 부흥특회]

〈계속〉**【대책 4】 후쿠시마현 특유의 과제에 대응한 상담원의 확보**

○ 후쿠시마현의 방사선 불안 등 후쿠시마현 특유의 과제에 대응한 상담지원체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후쿠시마 재생가속화 교부금 등을 활용해 지원을 도모한다.

※ 후쿠시마 재생가속화 교부금 <부흥청, 내각부>

[2015년 예산: 1,056억엔, 부흥특회]

〈강화〉**【 5 특유의 과제에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에 의한 지원**

○ 후쿠시마현에서의 상담 지원에 있어서는 후쿠시마현 특유의 과제에 정확히 대응하기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고령자의 생활설계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보건사 등의 유자격자(有資格者)에 의한 지원도 도모한다. <부흥청>

(2)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 사업 실시

주택재건으로 인해 이재민이 분산되고 가설주택에서의 피난이 장기화되어 이재민 지원체제의 재구축과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등이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 지원활동의 종합 조정이 과제가 되고 있다. 돌봄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상담원, 부흥지원요원, 긴급고용으로 고용된 지원요원, NPO, 봉사 등 다양한 활동 주체가 있는데 이들을 적절히 코디네이트(조정)해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재민의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기관과 연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원을 강화해야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인재 확보를 위한 업무지원 등도 필요하다. 그밖에 NPO 등에 대한 활동지원, CSR활동 등도 포함하여 이재민 지원의 코디네이트(조정)를 실시할 인재가 필요하다. 또한 삶의 보람 만들기에 대해서도 시작 단계에서는 실시 주체와 코디네이터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2014년도부터 이재민 지원 기획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자원을 발굴하여, ① 새로운 활동주체의 참가와 지원자 간 연계강화를 통한 지원체제의 내실화, ② 기업CSR활동과 자치단체 니즈의 매칭, ③ 삶의 보람 만들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각종 주체(NPO 등)와 지역을 연결하는 관계자 간 조정 등을 실시하고, 부흥청의 종합 조정기능과 연계해 이재민 지원체제의 강화를 도모한다.

<신규>**【대책 6】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사업의 실시**

○ 피난의 장기화와 이재민 분산화 같은 과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① 새로운 활동주체의 참가와 지원자 간 연계강화를 통한 지원체제의 내실화

② 기업CSR활동(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자체 니즈의 매칭

③ 삶의 보람 만들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각종 주체(NPO 등)와 지역의 연결 등 관계자 간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 사업을 실시해 종합 조정기능의 강화를 도모한다. 재해지와의 연락조정 등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터를 피해지역 3개 현과 도쿄에 배치하고, 부흥청의 종합 조정기능을 활용해 코디네이터를 실시한다.

※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 사업 <부흥청>

[2014년도 예산 (조정비로 실시) 0.3억엔, 부흥특회]

(3) 이재민 지원단체(NPO·자치회 등)에 대한 활동지원

재해지역에서는 돌봄, 교류 모임 등의 운영과 육아지원 등의 분야에서 많은 NPO 등이 활약하고 있어 향후 재해공영주택 등에서의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와 돌봄 등의 체제를 구축하고 가설주택에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피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NPO 등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NPO 등에 대해서는 내부 사무 및 지원기관과의 연결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많으며, 이들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피난생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돌봄 및 그 외 이재민 지원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자조(自助)·공조(公助)의 균형 하에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주민끼리 서로를 지원하는 활동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따라서 NPO 등의 업무 지원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2)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 사업'을 실시하면서 NPO 등이 적절한 역할을 맡도록 조정하고, 아울러 이재민의 건강·생활 지원 종합교부금 등을 통해 커뮤니티에 의한 자율적인 돌봄 활동과 해당 NPO 등에 의한 효과적인 활동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7. 사는 보람 만들기」(1)「마음의 부흥」사업에서 NPO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이재민의 지역활성화 활동에의 참여를 지원한다. 나아가 NPO 등의 운영역량 강화를 통한 부흥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돌봄과 마음의 케어에 관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향후에도 돌봄 등의 이재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실시해 간다.

더불어 한신(阪神)·아와지(淡路)대지진에서는 재해공영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류회와 입주 후 다과회・학습회 등 커뮤니티 형성 지원 차원에서 활동하는 NPO나 봉사단체 등에 대해 「부흥 기금」으로부터 보조하는 일정의 성과를 보았다. 또 니가타(新潟)주에쓰(中越)지진에 대해서도 봉사활동이나 NPO 등의 활동을 기금으로 보조하고, 주민들의 교류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금액은 수십 만엔 정도의 것이 대부분 이었지만 이러한 활동에 부흥기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NPO 등의 돌봄 및 커뮤니티 활동의 환경정비를 통해 이재민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강화> **【대책 7】 커뮤니티에 의한 돌봄 체제 만들기에 대한 지원**

○ 새로 창설하는 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으로 피난생활 장기화에 따른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담지원과 고립방지를 위한 돌봄 등 이재민의 일상생활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그 중 커뮤니티나 주민끼리의 돌봄에 의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 <부흥청, 후생노동성>

[2015년도 예산 : 59억엔, 부흥특회]

<강화> **【대책 8】 NPO 등의 운영역량 강화를 통한 부흥지원사업과 연계**

○ 재해지역의 부흥 및 이재민 지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NPO법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피해지역 3개 현에 대해 교부금을 교부하고, NPO법인 등의 부흥지원에 필요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과 운영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선구적인 조치를 지원한다. 돌봄과 마음의 케어에 관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NPO 등에 의한 돌봄 등 이재민의 건강・생활 지원활동의 추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 NPO등의 운영역량 강화를 통한 부흥지원사업 <내각부>

[2015년도 예산 : 2.3억엔, 부흥특회]

(4) 기업CSR에 의한 이재민 지원활동의 촉진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의한 이재민 지원에 대해서는 사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입사원 전원을 재해지역에 일정기간 파견하고 가설주택에서의 밀착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향후 보다 기업CSR에 의한 이재민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이 제공 가능한 지원내용과 재해지역 지자체 측에서 기대하는 지원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 동안의 지원사례를 참고하면서,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사업'을 활용하여 재해지역 자치체의 의향을 파악한 뒤 경제단체의 협력도 얻어 CSR에 의한 기업의 지원내용을 조사·정리해 양자의 매칭을 추진한다.

<신규> **【대책 9】 기업CSR 매칭의 추진**

○ 기업 CSR에 의한 재해지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 측이 제공 가능한 지원내용과 재해지역 자치체 측이 기대하는 지원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재해지역 자치체와 기업CSR의 매칭을 도모한다.

※ 이민 지원 코디네이트 기획사업 <부흥청>

[2014년도 예산 (조정비로 실시) 0.3억엔, 부흥특회]

(5) (介護) 등의 지원 거점의 활용촉진

가설주택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 관점에서 종합상담, 주택 간호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주민 교류지원 등의 종합적 기능을 하는 장소로서 가설주택에 인접한 간호 등의 지원 거점이 설치되어 있다. (재해지역 3개 현에 116곳)

지원 거점 관련하여, 피난 생활의 장기화에 따라 2015년도에도 「지역의 함께 의지하는 체제 만들기 사업」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실시함은 물론 가설주택의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돌봄 및 고립방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당 지역과 개인의 실정과 니즈에 맞게 적절히 추진해간다.

<연장> **【대책 10】 지원 거점의 활용 촉진**

○ 가설주택 등에 입주하는 고령자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담 지원과 지역교류 등의 기능을 가진 「지원 거점」의 운영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 재해지역 3개 현에 116곳 - 이와테현(岩手縣):27곳, 미야기 현(宮城縣): 62곳, 후쿠시마 현(福島縣): 27곳 / 2014년 11월 말 시점)

※ 지역이 함께 지원하는 체제 만들기사업 <후생 노동성>

[2015년도 예산 : 18억엔 (2014년도 예산 15억엔), 부흥특회]

2. 전문직종(보건·의료·복지)의 인재확보

의료·개호(介護)의 부흥은 재해지에서의 건강・생활지원의 기반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분야의 전문직 인력확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전국의 자치단체 등의 협력을 얻으며 각종 대응책이 강구되어 왔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력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의사・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의 확보

의사확보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재생기금에 의해 지역단위 기부강좌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원과 의사가 부족한 병원의 의사확보 지원 등을 실시하는 지역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재해지역 3개 현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료 재생기금을 활용해 인력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재해 지역에서의 의료 부흥계획 수립 후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료 재생기금을 확충하고「지역의료・간호 종합확보기금」으로 의사·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의 확보·양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나아가 피해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대학병원을 통해 동북지방의 의료를 담당하는 인재 양성과 재해지역에의 의사파견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지진피해 복구와 초고령화에 따른 동북 지방의 의사 부족, 원자력 사고로부터의 복구 등을 위해 동북지방에 1개 학교에 한해 의학부 신설의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확충>**【대책 11】의료종사자의 확보・양성**

○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책정하는 지역의료 재생계획, 의료 부흥계획에 의거한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지역의료 재생기금을 설치한다. 재해 3개 현에 대해서는 기금을 확대하고 의료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계획 수립 후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료 재생기금을 확대한다. 또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료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재해3현에도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 외에도, 후쿠시마 소소(相双)지역과 이와키시(いわき市)에는 계속해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직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니즈의 파악과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실시한다.

※ 지역의료 재생기금 <후생 노동성>

[2015년도예산 : 172억엔(재해 3개현 분), 일반회계·부흥특회]

○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가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의료·간호 서비스의 제공 체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지역 의료간호종합확보기금」을 설치하고 의사 등 의료종사자 확보를 포함한 도도부현 계획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 지역의료간호종합확보기금 <후생 노동성>

[2015년도 예산 : 602억엔(47도도부현 분), 일반 회계]

<계속> **【대책 12】 대학 및 대학병원을 통한 의료지원**

○「동북지방에서의 의학부 설치 관련 심사회」에 의한 심사결과, 2014년 9월에 조건부로 동북약과대학(東北藥科大學) 설립(안)이 선정되어 동북 각 현과 각 대학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개학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도・조언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협의회에서 교원 확보 등 심사회의 선정조건을 충족시킨 후 2016년 4월에 개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동북대학병원(東北大學病院) 및 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 인재의 양성과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 등을 담당 할 인재양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대학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계속 실시한다.
※ 미래의료연구 인력양성거점 형성사업 <문부 과학성>

[2015년도 예산 : 16.2억엔, 일반 회계]

○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 및 대학병원을 통해 동북지방의 의료를 담당할 인재 양성과 재해지역에의 의사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 동북메디컬 메가뱅크 계획 <문부과학성>

[2016년도 예산 : 35.6억엔, 부흥특회·일반 회계]

(2) 보건사의 확보

장기간 가설주택 등에서의 생활로 의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재민 건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사에 의한 순회 보건지도 등 각종 건강지원 활동을 담당할 보건사 등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 재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재민건강지원사업을 통해 83명이 확보되었다. (2014년도 12월 말 시점) 피난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발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증가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계속적인 건강지원 활동의 전개가 중요하다. 때문에 재해 지역건강지원사업을 2015년도에도 연장하고, 계속해서 보건사 확보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보건사 확보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말 부흥청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관계단체 및 전국의 자치단체 앞으로 협력의뢰 통지를 한 데 이어, 2014년 12월에는 새롭게 총무성을 추가하여, 총무성, 부흥청, 후생노동성 3개 부처가 협력하여 전국 자치단체 앞으로 협조의뢰 통지를 발송하였다.

<연장> **【대책 13】 보건사 확보의 지원**

○ 「재해지역건강지원사업」을 2015년도에도 연장하고 계속해서 보건사 확보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보건사 확보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말의 협조의뢰 통지에 이어, 2014년 12월에 총무성, 부흥청, 후생노동성이 함께, 관계단체 및 전국의 자치단체 앞으로 협조의뢰 통지를 발송하였다.

※ 재해지역건강지원사업 <후생 노동성>

[2015년도 예산 : 4.0억엔]

<강화> **【대책 14】 보건사 확보의 협력의뢰**

○ 가설주택 등에서의 순회 보건지도 등 각종 건강지원활동을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방안으로서 이하의 대응을 실시하고 있음.

- 2014년 3월 말에 부흥청과 후생노동성 연명으로, 관계단체 및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의뢰 통지를 발송
- 2014년 8월 국민건강보험중앙회 앞으로, 재택보건사모임(在宅保健師會)에 소속된 보건사에게 주지(周知)를 의뢰.
- 2014년 12월, 전국의 자치단체 앞으로 총무성을 추가한 3개 부처로부터 보건사 파견의 협조의뢰 통지를 발송 <부흥청, 후생노동성, 총무성>

(3) 간호직원의 확보

간호직원 확보에 대해서는 '복지·간호인재확보 긴급지원사업'에 따라 복지인재센터와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에 의한 매칭 강화를 지원하는 등 인재부족이 심각한 후쿠시마현의 사정을 감안해 2014년도부터 새롭게 재해지역에서의 복지·간호인력 유치사업을 창설하고, 현 밖으로로부터 소소(相双)지역 등의 간호시설 등에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간호직원 초임자연수 수강비와 취업준비금의 대여(貸与 : 일정기간 종사한 경우에 반환 면제) 등에 의한 인재확보를 지원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도에도 재해지역에서의 복지·간호인력 유치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속해서 후쿠시마 현 소소(相双)지역 등에서의 간호인력의 확보를 도모한다. 또한, 2015년도부터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치한 지역의료간호종합확보기금을 활용한 간호종사자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확충> **【대책 15】 간호인력의 확보 지원**

○ 후쿠시마현 소소(相双)지역 등에서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2014년도부터 새롭게 창설한 「재해지역에서의 복지·간호인력 확보사업」을 2015년도에도 이어서 실시하고, 후쿠시마현 외부로부터 소소지역 등의 간호시설에의 인력 참가를 촉진하는 복지·간호인력의 확보를 도모한다.

※ 재해지역에서의 복지·간호인력 확보사업 <후생노동성>

[2015년도 예산 : 1.8억엔 (2014년도 예산 1.9억엔), 부흥특회]

○ 2015년도부터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치한 지역의료간호종합확보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인재의 참가촉진, 자질의 향상, 노동환경·처우 개선의 관점에서 간호종사자의 확보대책을 추진한다.

※ 지역의료간호 종합확보기금 (간호 분) <후생노동성>

[2015년도 예산 : 60억엔 (47도도부현 분) 일반 회계]

3. 지원자(支援者) 케어의 촉진

피난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자신도 피해자인 자치단체 직원이나 돌봄 담당자 등이 많이 있는데 지원활동에 있어서는 이재민의 고뇌를 마주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대응과정에서 무력감과 죄책감을 갖게되어 본인의 심신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 케어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1) 연수회의 실시

마음의 케어 활동 안에는, 지금까지 지원자 지원대책이 도입되어 왔고, 예를 들어 '후쿠시마 마음의 케어 센터'에서는 지원자 측의 수요에 부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공동지원(peer support)의 장이 될 그룹미팅, 셀프케어 등 스트레스와 그 대처법에 관한 연수회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돌봄 등의 활동을 비롯해 그 외 이재민지원활동 분야에서 역시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향후 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을 통해 돌봄 등 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재민에 대한 지원기법 관련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재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자 교류회나 연수기회를 마련하고 지원자 케어를 실시한다.

이러한 교류회나 연수회에는 지역 자치회의 활동자 등에게도 참여를 촉구하고 지원자 측의 고민과 지원활동 현장에서의 연구 등을 공유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자의 부담감을 줄이고 향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계속> **【대책 16】 지원종사자의 연수회**

○ 이재민 건강·생활 지원 종합교부금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활동을 활용한 이재민 생활지원사업」에 의한 이재민에 대한 지원기법 관련 연수나 멘탈 케어 등 이재민 지원에 종사하는 자들의 활동 지원을 한다.

※ 이재민 건강·생활 지원 종합교부금 <부흥청, 후생노동성>
[2015년 예산: 59억엔, 부흥특회]

<신규> **【대책 17】 지원자 교류회의 실시**

○ 부흥청에서 각 자치단체와의 의견교환 시 대책의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교류회에 참여하는 지원자의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 사업을 활용하면서 자치단체와 교류회의 개최를 위한 조정을 추진한다. <부흥청>

(2) 실적이 활용되는 구조의 검토

상담원·부흥지원요원(復興支援員)으로서 부흥에 공헌한 분들 중에는 장기피난 중인 많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돌봄과 상담업무에 있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다수 배출되고 있다. 이분들은 향후 고령자 케어가 중요한 과제가 될 지역에 중요한 인재인 동시에 대규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도 소중한 인재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이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활동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대지진으로 상담원·부흥지원요원으로서 활동한 분들에 대해 복지분야 등에서의 향후의 경력향상(career up)으로 이어지도록 활동 실적을 표기한 기록의 교부 등을 통해 활동실적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대책 18】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구조의 검토**

○ 생활지원 상담원 등의 직무경험이 복지분야에서의 경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검토한다. <부흥청, 후생노동성>

Ⅱ. 주거와 커뮤니티 관련 과제에 대한 대응

1. 가설주택과 커뮤니티 관련 과제에 대한 대응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고 가설주택에서의 피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정확한 심신의 케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집회소 등 가설주택 주민이 모여 얼굴을 마주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 가설주택 단지에서는 집회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류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가설주택에서 이재민이 떠나며 빈 주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커뮤니티 유지와 방범 등의 측면에서 가설주택을 집약화하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접어든 국면에서 가설주택에 관한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집회소 등으로서의 빈 주택의 효과적인 활용

가설주택 단지에서는 대체로 50호 이상의 경우 거주자의 집회 등을 위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또한 10호 이상 50호 미만의 경우엔 집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부 가설단지는 인근의 공적 시설의 활용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건설 당시에 집회소가 마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류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응급가설주택은 재해 지자체의 행정재산이므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응급가설주택에 빈 주택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과 이산가족의 재결합 등을 위해 현 내부의 건설형 가설주택 등으로부터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빈 주택에 대해서는 집회나 담화 등의 공간으로서의 이용이나 위탁 봉사의 숙박시설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흥청 및 후생노동성(현재는 소관이 내각부로 이관)이 응급가설주택을 설치하고 있는 도도부현 앞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빈 주택을 집회소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프리마켓 등 생활지원 관련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오츠치쵸(大槌町)에서는 가설주택 내의 빈 주택 활용을 위해 이재민 외에 U턴자, 부흥사업에 종사하는 신규취업자 등에게 빈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가설주택 설치주체인 도도부현에 허가 권한이 있지만 시정촌(市町村)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모색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우선 목적 외 사용 등 빈 주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를 홍보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의 니즈를 파악하고 가설주택으로부터 이전의 추진 필요성에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이재민 지원 차원에서 도도부현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빈 주택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강화〉**【대책 19】빈 주택의 유효 활용의 촉진**

○ 동일본 대지진으로 건설한 응급가설주택에 빈 주택이 발생한 경우에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과 이산가족의 재결합 등을 위해 현 내의 건설형 가설주택 등에서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2013.11.12 내각부 방재참사관 통지)

○ 지자체의 지원직원이나 위탁 받은 자원봉사자의 숙박시설로의 이용(2012.1.23 후생노동성 과장 통지)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한 담화실로서의 이용 등(2011.8.12 후생노동성 과장 통지)을 인정하고 있다. 부흥청에서 각 지자체를 돌면서 의견교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례의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재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이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각 지자체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실시한다. <부흥청, 내각부>

(2) 빈 주택 등의 개수(改修)

빈 주택을 집회소로 활용하려면 일정의 개수(改修)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재해구조법에 의거한 응급구조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동 법의 적용 범위 내에서 노후한 부분의 보수(補修)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 지자체 독자적으로 빈 주택에 집회소의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노후화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기 어려운 응급가설주택에서도 '지역의 함께 의지하는 체제 만들기'사업을 활용해 간호 거점으로서 응급가설주택의 개수나 비품을 구입 할 수 있는 장소, 고령자를 비롯한 고립 방지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재해지자체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의 장을 통해서 이처럼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응급가설주택의 커뮤니티 유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면서 지자체 등에 대한 조언을 실시한다.

〈강화〉**【대책 20】 빈 주택의 개수(改修)**

○ 부흥청에서 각 지자체를 돌며 의견교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의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내각부와 함께 각 지자체 등에 대해 정보공유를 실시한다. <부흥청, 내각부>

(3) 공여 기간의 연장

응급 가설주택의 공여기간에 대해서는 원칙 2년이지만,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씩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거주 중인 이재민 입장에서는 더 연장이 될지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후쿠시마현에서는 2014년 5월, 이와테현 및 미야기현에서는 2014년 6월에, 5년차까지 연장을 조기 결정했다. 앞으로도 안전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체 주택의 확보 등 복구 상황에 따라 연장 결정 시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계속> **【대책 21】 공여기간 연장의 유연한 대응**

○ 동일본 대지진은 특정 비상재해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씩 공여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이와테현, 미야기현·후쿠시마현 3개현에서는 5년까지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 6년으로의 연장방안에 대해서 이와테현, 미야기현·후쿠시마현의 3개현에서 현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장 여부의 결정시기에 대해서도 3개현의 의향을 들은 뒤 대응할 예정이다.

<내각부, 부흥청>

(4) 가설주택 집약화에의 대응

주택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이용이나 방범·커뮤니티 대책을 위한 가설주택의 집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경우는 이전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설주택 집약을 위한 이전 지원은 지자체에서 이사비용의 보조 외에도 카마이시 시(釜石市)처럼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자의 협력 하에 가설주택 간의 이사를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때는 효고현(兵庫縣)에 설치한 대지진부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동일본 대지진 시에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宮城縣石卷市)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진재해부흥기금을 재원으로 이전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가설주택의 집약은 지자체에서 정중하게 합의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방침을 참고 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지자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흥청이 지자체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가설주택의 집약화 방안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자체의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한다.

<강화>**【대책 22】가설주택의 집약화에 관한 정보 제공**

○ 부흥청에서 각 지자체를 돌며 의견교환 등을 실시할 때에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 설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내각부와 함께 각 지자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부흥청, 내각부>

(5) 커뮤니티의 재구축

가설주택의 집약과 함께 커뮤니티의 재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도 가설주택에 대한 돌봄 지원을 하면서, 재해지역의 생활과 교통을 지원하기 위해 가설주택과 병원, 상점, 공적 기관 등을 이어주는 지역 내 수송수단에 대해 가설주택의 수에 맞춘 보조도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재구축에 대해서는 '돌봄 등 활동'의 추진과 같이 생활지원 상담원의 확보, 지진 등 대응 고용지원사업에 의한 돌봄 등 활동의 강화,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의 내실화를 통한 커뮤니티 지원에 새로운 활동 주체의 참여, 기업CSR과 지자체 니즈의 매칭, NPO에 관한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가설주택의 이재민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과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2015년도에도「특정재해지역 공공교통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내 수송의 보조를 계속함으로써, 가설주택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 대중교통을 유지하고 커뮤니티의 재구축을 도모한다.

<계속>**【대책 23】재해지역 생활교통의 지원**

○ 피난소·가설주택·잔존마을과 병원, 상점, 공공 기관 간의 이동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수송 등에 대해서 복구상황에 맞는 유연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2013년도까지의 한시적 조치했지만, 재해지역에서의 강력한 요청을 바탕으로 가설주택 수에 맞춰 보조 상한액을 올리는 등 지역 맞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특정재해지역 공공교통조사사업 <국토교통성>

[2015년도 예산 : 21억엔, 부흥특회]

2. 재해공영주택과 커뮤니티 관련 과제에의 대응

재해복구가 진전됨에 따라 재해공영주택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해공영주택의 정비에 있어서는 건물 구조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재민의 이전 후의 커뮤니티 형성, 건강・생활 지원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래의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재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택 입주 결정에 신중한 모색이 필요하다.

(1) 재해공영주택 정비의 가속화

재해공영주택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택재건·부흥 마을만들기의 가속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에서 지역주민과의 조정이나 마을 만들기의 전문직원 파견의 촉진, 원활한 시공확보의 지원 등과 함께, 재해공영주택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나 발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등 관계 부처와 제휴하여 재해복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에 의해, 2014년도 말 시점에는 이와테현(岩手縣) 약 1,700호(대략 30%), 미야기현(宮城縣)에서는 약 6,500호(대략 40%)정도였던 정비상황이, 2015년도 말까지, 이와테 현에서 약 3,800호(대략 65%), 미야기 현에서는 약 11,800호(대략 75%), 후쿠시마 현에서는 약 4,000호의 정비가 전망되고 있다. (2014년 9월 말 현재).

앞서 말한 태스크포스에서 지금까지의 가속화조치의 실시상황을 바탕으로 파악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가속화 조치를 내실화·보완한「주택재건·부흥 마을만들기의 애로사항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정리했다. 계속해서「용지가속화지원단(用地加速化支援隊)」과 「공사가속화 지원단(工事加速化支援隊)」에 의해 현·시정촌의 지원을 실시한다.

<확충> **【대책 24】 재해공영주택 정비 가속화**

○ 부흥청과 관계부처에 의한 태스크 포스에서「주택재건·부흥 마을만들기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2015년 1월). 각 단계에서의 과제와 그 대책을 종합하여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는 재해공영주택의 정비를 착실히 진행시키기 위해 ① 입찰•계약의 확실한 실시 ② 계약 후의 변화에 대한 확실한 대응 ③ 공사의 확실한 실시를 위한 대책으로 구성된「재해공영주택 공사 실시 프로그램(災害公營住宅工事確實實施プログラム)」(2014년 9월 27일 제4차 국토교통성 부흥가속화 회의에서 정리)을 추진하고 자재·인재의 매칭 지원, 프로그램 실시상황에 대한 파악·점검 등을 실시한다.

<부흥청 국토교통성>

<계속> **【대책 25】「공사가속화 지원대(工事加速化支援隊)」등에 의한 현·시정촌(市町村) 지원**

○ 용지취득과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구체적 과제에 대해「용지가속화 지원단」과 「공사가속화 지원단」이 국토교통성 등과 연계하여 직접 현·시정촌에 가서 꼼꼼하게 지원한다.

<부흥청, 국토교통성>

(2) 주택정비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배려

쓰나미·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흥교부금에 의한 재해공영주택을, 원자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재생가속화 교부금(커뮤니티부활교부금 분)에 의한 장기피난자를 위한 재해공영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이재민에 대한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태스크포스(被災者に對する健康・生活支援に關するタスクフォース)」의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등을 배려한 공영주택의 선진적인 사례나,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할 입주자모집 등의 사례를 수집하는 동시에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하여 고령자 지원과 커뮤니티 형성의 거점으로서 재해공영주택의 정비방안에 대해 재해지역 3개 현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市町村)의 요청에 따라 커뮤니티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사양 및 공간의 설치 등의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후쿠시마현에서는 장기피난자 등의 생활거점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연구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후쿠시마현, 관련 시정촌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하드·소프트 양면에 걸쳐 양호한 커뮤니티를 유지·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본 연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실시를 이어 간다.

커뮤니티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공영주택의 정비시에 건강, 복지·간호 등의 대책과의 제휴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집한 선진적인 사례가 향후 주택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할 시정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재해공영주택의 정비와 건강, 복지·간호 등의 대책을 종합한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한층 강화된 연계를 도모한다.

<강화>**【대책 26】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배려**

○ 「이재민지원뉴스레터」에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코디네이트 사업과 「마음의 부흥(心の復刻)」 사업 등의 신규사업에서 가설주택에서의 피난의 장기화와 재해공영주택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의 지원을 실시한다. <부흥청>

<계속>**【대책 27】주택부서와 보건·복지부서의 연계 촉진**

○ 현(縣)주최의 시정촌(市町村) 회의 등에서 재해공영주택과 복지시설 등과의 병설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의 복지부서와 주택부서로부터 개별적으로 생활지원 서비스의 실시 상황이나 과제 등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재해공영주택의 정비사례와 간담회 활동의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지자체의 요구에서 맞춰, 복지와 거주의 연계에 관한 사례나 지원책 등의 정보제공과 의견교환을 실시한다.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확충〉**【대책 28】부흥교부금 활용에 의한 지원의 탄력화**

○ 재해공영주택 입주 단계에서 재해지역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부흥교부금의 활용촉진의 방침(復興交付金の活用促進の方針)」을 제시했다.(2014년 11월). 효과촉진사업 일괄배분의 대상이 되는 기간(基幹)사업에 재해공영주택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시설 등의 정비나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의 착수 지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3)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재해공영주택을 이전한 직후에는 지역 안팎에서 온 이재민이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존 커뮤니티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지역에 있던 기존의 자치회・커뮤니티와의 조화나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해 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에 의한 자립적인 돌봄체제 구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에 충실하고, 커뮤니티 지원의 새로운 활동주체의 참가와 기업CSR과 지자체 니즈의 매칭, NPO에 관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나아가 부흥교부금의 효과촉진사업의 활용에 의한 지원을 탄력화하고,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의 착수 지원 등에도 대응한다.

(4) 재해공영주택의 입주자 모집의 추진

재해공영주택으로의 이전에 있어서 공평성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할 입주자모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실정을 바탕으로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입주자 전형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거나, 통상적으로 공모가 필요한 공영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을 한정한 입주자 모집의 실시, 재해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취급, 커뮤니티 별 그룹모집의 실시, 가설주택 입주자 등의 규정(틀)설정 등)

이러한 입주자 모집방법의 선택에 있어서의 유의할 점을 지자체에 정보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사업주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써, 재해공영

주택 입주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전 설명회 실시, 입주 전의 자치회 설치 등 재해공영주택으로의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커뮤니티 만들기를 지원한다.

또한, 장래 생활의 불확실성은 이재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이시노마키시(石巻市) 등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재해공영주택으로의 입주 결정을 함으로써 입주의 불안을 덜어주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는 재해공영주택의 정비에 대해 계획 전체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들을 주지하고, 이재민들의 미래의 불안을 덜어주는 대응을 촉진한다.

<강화> **【대책 29】 입주자 모집 사례 등의 주지**

○ 입주자 모집에 관한 방법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縣) 주최의 시정촌(市町村) 회의 등에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적・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시정촌의 요청에 따라, 의향 파악·모집에 관한 조사표 작성 등에 대한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 조기 입주결정에 관한 방법 등의 사에 대해서는 현(縣)이나 시정촌(市町村) 등과의 의견 교환회 등에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터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역실정 등에 맞는 정보제공을 실시한다. <부흥청>

Ⅲ. 「마음」의 부흥(心の復興)

1. 마음의 케어

대지진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길어질 피난생활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담지원을 비롯한 이재민에 대한 마음의 케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1) 마음의 케어 지원

이재민 '마음의 케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점으로서 재해 3개 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心のケアセンター)를 설치하고, 방문・내원 등에 의한 상담, 시정촌 보건사에 대한 후방 지원, 전문가에 의한 동행 방문, 지원자(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직원 등)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마음의 케어 센터’의 상담지원 활동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많아, 2014년 6월 및 12월에는 재해 3개 현에서 ‘마음의 케어’ 지원사업에 관한 합동 회의를 열고 과제를 공유한 바 있는데, 2015년도에도「이재민의 마음의 케어 지원사업」을 계속하면서 각종 건강조사의 결과도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계속〉**【대책 30】마음의 케어 센터(心のケアセンター)에 의한 지원**

○ ‘마음의 케어 센터’에서 이재민 마음의 케어 지원을 실시한다(이와테현에 46명, 미야기현에 65명, 후쿠시마 현에 59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 (2014년 4월 현재). 「재해 3개 현에서 마음의 케어 지원사업 합동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이재민의 마음의 케어 지원사업(被災者の心のケア支援事業) <후생노동성>

[2015년도 예산 : 16억엔, 부흥특회]

(2) 밀착형 상담지원(寄り添い型の相談支援)

재해지에서 살기 어렵거나 생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무료 전화상담창구인 「밀착 핫라인」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면접 상담과 지원기관 등으로의 동행지원 등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밀착형상담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접속률 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업실시를 통해 얻어진 상담자나 상담내용에 관한 분석 결과를 이재민 지원활동의 관계자들과 널리 공유하고 향후 지원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계속〉**【대책 31】밀착 핫라인에 의한 지원의 계속**

○ 동일본 대지진 후 재해지에서의 거주 어려움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고, 누구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과 지원기관의 소개, 동행지원 등 밀착 지원을 실시한다.

* 2014년도 4월부터 9월 말까지의 실적이 연 40,681건(2013년도 실적 : 총 105,785건)의 전화상담을 대응함. ※ 밀착형 상담지원사업 <후생노동성>

[2015년도 예산 4.4억엔, 부흥특회]

(3) 여성의 고민·폭력에 관한 상담

재해지에서는 길어진 피난생활과 생활불안 등으로 여성이 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성의 고민과 성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전국의 NPO나 '남녀센터' 등의 상담원을 재해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실시해 왔다.

2015년도에도「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여성의 고민·폭력에 관한 상담사업」을 계속하면서 이와테현, 미야기현의 전화상담 업무는 지역의 상담창구로 이관하고 상담대응 및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검토·연수 강사로서 전국 어드바이저를 파견함과 동시에 후쿠시마현의 전화 상담 업무에 대해서는 상담창구의 백업을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인재의 육성을 도모한다.

<계속>**【대책 32】여성의 고민·폭력의 상담사업의 계속**

○ 이와테현, 미야기현에서는 복구작업이 진전되고 지자체의 업무도 평시 상태로 돌아와 2014년부터는 전화상담 업무를 현지에 이관. 후쿠시마현에서는 원전사고에 기인한 현외부의 피난자가 많기 때문에, 통화료 무료인 전화상담을 계속해서 실시. 대지진 이전의 기존 창구 등에서 상담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상담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2015년도는 기존 창구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새롭게 실시할 예정.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여성의 고민・폭력에 관한 상담사업 <내각부>

[2015년도 예산 : 0.7억엔, 부흥특회]

(4) 알코올 대책

장기화된 피난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립되기 쉬운 일상생활의 불안감 등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야기현의「응급가설주택 입주자 건강조사(2013년도)」에 따르면「아침 또는 낮부터 음주할 때가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또한 동 건강조사의 분석에 의하면 독거의 경우「음주」의 위험이 2배, 또한 상담 상대가 없는 사람의 경우「음주」위험이 1.7배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알코올 중독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로 연결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단주(斷酒)치료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환자의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가정,

직장,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 등 모든 상황에서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독증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스크리닝 테스트를 활용하여 알코올 문제의 정도를 적절히 평가한 후에 대상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음주량을 줄일수 수 있도록 보건사 등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쿠시마 '마음의 케어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알코올 대응력 강화사업으로 후쿠시마 현립의대 등의 협조를 받아 알코올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을 지역이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고,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재해 3개 현의 '마음의 케어 지원사업 합동회의' 등을 활용해 재해 지자체에 확산시킨다.

또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宮城縣石卷市)의 '카라코로 스테이션'(からころステーション：からだ(몸)＋こころ(마음))에서 1인 거주 남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임을 아침부터 개설하고 장기 등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실시되고 있지만, 알코올 문제의 기저에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계속>**【대책 33】후쿠시마 '마음의 케어센터' 의 알코올 대응력 강화**

○ 후쿠시마 '마음의 케어센터'에서 알코올 대응력 강화사업을 실시.

- 2014년도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응 관련 연수회, 심포지엄, 시민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와키(いわき) 지역, 소소(相双) 지역 등 두 지역에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마음의 케어센터에서의 알코올 대응력 강화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시방법, 성과 등에 대해「재해 3개 현의 마음의 케어 지원사업 합동회의」등에서 정보의 공유화를 실시한다.

※ 이재민의 마음의 케어 지원사업<후생노동성>

[2015년도 예산 : 16억엔, 부흥특회]

(5) 자살 대책

재해지역에서의 자살대책은 '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기금' 활용에 의해 상담지원 사업과 자살예방 등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등의 대책이 실시되어 왔고, 계속해서 재해지에서의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6월에는, 재해 3개 현 등의 행정·민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대책 민관연계 협동회의가 개최되어, 과제의 공유, 지원 네트워크 조성이 실시되었고, 계속해서 이러한 연계활동을 통해 재해지의 자살 대책을 지원한다.

<계속>**【대책 34】자살대책 지원의 계속**

○ 향후 계속해서 자살대책을 관・민 연계 하에 실시. 자살대책 관・민 연계 센다이 회의(2014년 12월)에서 회의참가자(지자체 담당자, NPO 등)간에 자살대책 방안을 포함한 과제의 공유, 지원 네트워크 조성 등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도 자살대책 관・민연계 협동회의 등 추진과 인재양성의 지원을 실시한다. <내각부>

2. 삶의 보람 만들기

가설주택에서 긴 피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진 이전처럼 취업, 타인과의 교류, 지역활동 등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찾지 못하는 이재민도 많기때문에 이들의 삶의 보람 만들기를 뒷받침 할 방안이 중요하다.

(1)「마음의 부흥」사업 등에 의한 삶의 보람 만들기

가설주택 등의 커뮤니티 내에서 타인과의 교류 기회가 부족해 고립되기 쉬운 이재민도 적지 않은데, 그러한 환경은 마음의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재민의 고립 방지에 대해서는 돌봄활동과 함께 가설주택의 집회장 등을 활용한 모임 활동, 요리나 간호 예방 등에 관한 교실이 개최되고 있지만 가설주택 등에서 은둔하기 쉬운 일상생활이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돌봄활동이나 심신의 건강 문제가 표면화 됐을 때의 보건・의료의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삶의 보람 만들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고립방지 관점에서 이재민들이 자주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결함으로써 이재민의 심신 케어를 실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2015년도부터 「마음의 부흥」사업으로서 농업과 수산업, 전통문화의 계승, 세대 간 교류, 제조 등의 분야에서 지역활성화 활동에의 참가를 통해 이재민의 삶의 보람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이재민 지원 코디네이트 사업'을 통해 삶의 보람 만들기 사업의 실시 주체와 지자체 등 관계자 간의 조정을 2014년도부터 실시한다. 세대 간 교류는 대학 등의 지역부흥을 위한 센터적 기능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대책 35「마음의 부흥」사업의 실시**

○ 고립방지와 함께, 이재민의 지역활성화 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심신케어를 위해 「마음의 부흥(心の復興)」사업을 실시.

※ 「마음」의 부흥사업 <부흥청>

[2015년도 예산 5.6억엔 안팎, 부흥특회]

〈계속〉**【대책 36】대학 등을 활용한 지역 부흥**

○ 2011년도부터 재해지의 대학 등을 중심으로 지역부흥센터적 기능을 정비하고, 재해의료교육, 지역산업 재생, 부흥 담당자의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의 초등·중학생 대상의 학습지원을 실시하는 등 세대 간 교류도 실시하고 있으며, 부흥지원공유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정보공유를 도모한다.

※ 대학 등의 지역부흥을 위한 센터적기능 정비사업 <문부과학성>

[2015년도 예산 : 10.1억엔 정도, 부흥특회]

(2)「새로운 동북」선도모델사업의 활용

「새로운 동북」선도모델사업으로 이재민의 자주적인 활동을 자립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갈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지진 발생 후 자선행사에서 니트 제품 만들기를 해 온 제작자들의 활동을 비즈니스로서 자립시키기 위해 생산체제를 만들고 시장의 마케팅 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증검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델사업의 활동 지원이나 연계사업 전개를 통해 이재민의 삶의 보람 만들기로 이어 나간다.

<강화>**【대책 37】삶의 보람 만들기에 기여하는 모델사업의 지원 · 전개**

○ 복구는 재해지역 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선도적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책은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새로운 동북」선도모델사업 및「새로운 동북」창조와 관련된 각 지역의 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보람 만들기로 이어 나간다.

※「새로운 동북」선도모델사업(「新しい東北」先導モデル事業) <부흥청>

[2015년도 예산 : 8.3억엔 정도, 부흥특회]

○ 재해지역에서 폭넓은 담당자 간 연계를 활발하게 하고, 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새로운 동북」관민 연계 추진협의회의 대응도 충실히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지의 사업자와 창업자가 필요한 자금 제공과 노하우의 지원을 받았고 또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한 선진적 대응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새로운 동북」관민 연계 추진협의회 운영사업 <부흥청>

[2015년도 예산 : 5.6억엔 정도, 부흥특회]

3. 「새로운 동북(新しい東北)」선도모델사업의 활용

부흥청이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새로운 동북」선도모델 사업은 대지진 이전부터 지역이 안고 있던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나라와 세계의 모델이 될 「새로운 동북」을 창조하기 위해 재해지에서 싹트고 있는 선도적인 방안을 공모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는 다음의 5개 분야에 이루어진다.

1.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의 성장을 보살피는 안심 사회
2.「고령자 표준」에 의한 활력있는 초고령사회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 (자립·분산형 에너지 사회)
4. 튼튼하고 높은 회복력을 가진 사회 기반(시스템)의 도입으로 발전하는 사회
5. 높은 발신력(發信力)을 가진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사회

그 중 「고령자 표준」에 의한 활력있는 초고령사회에서 채택된 제안에는

1. 커뮤니티·서포트 센터의 모델만들기
2. 농원을 활용한 고립방지·건강 만들기

등 건강·생활 지원에 관한 것도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동북」에 대해서도 이재민의 건강·생활 지원에 활용해 간다.

<참고 정보>「새로운 동북」의 창조를 향하여(「新しい東北」の創造に向けて) (부흥청 홈페이지)
http://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1/sub-cat111/creationnewtohoku.html

(1) 이재민지원 모델사업의 활동

가설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은 일용품 구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케이스도 발견된다. 그런 경우 장보기 지원을 위한 TV데이터 방송을 통한 택배 서비스, ICT를 활용한 무인판매소 운영 시범 사업에 대해 2014년도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장보기 지원의 이용 수요와 채산성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NPO와 민간기업에 의한 가설주택 거주자의 장보기 지원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지진 발생 이후 자선행사에서 니트 제품을 만들어 온 제작자들의 활동을 비즈니스로서 자립시키기 위해 생산체제 구축 외 시장 마케팅 조사, 실증 검증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민의 삶의 보람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재해지 브랜드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재해지역 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복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지원책으로서 2015년도에도「새로운 동북」선도모델 사업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이재민의 생활 지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계속〉**【대책 38】이재민지원 모델사업의 지원**

○ 재해지역 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복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책은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새로운 동북」선도모델 사업 및「새로운 동북」의 창조에 관련된 각 지역의 사업을 실시한다.

※「새로운 동북」선도모델사업(「新しい東北」先導モデル事業) 〈부흥청〉
[2015년도 예산 : 8.3억엔, 부흥특회]

(2) 모델사업의 횡적 전개

「새로운 동북」선도모델사업의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재해지에서 꾸준하게 유관기관간 횡적 협력을 통해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民)」의 활력을 기반으로 부흥청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각종 시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부흥교부금은 기간(基幹)사업과 관련하여 재해 지자체가 자주적·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효과촉진사업)을 가능하게 한 유연한 제도로서 새로운 마을 만들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이재민의 생활재건지원 등 복구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재해지에서의 선도모델사업을 횡적으로 전개할 때 재해지자체 가 실시주체가 되고 이 효과촉진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새로운 동북」의 횡적 전개에 이바지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부흥청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추진하는 시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흥청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알기 쉽게 재해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새로운 동북」선도모델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고 횡적연계를 통한 선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와 이들을 도입하려는 주체 사이에서 추진 상황과 노하우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재민에 대한 건강·생활지원 분야에서는 「민(民)」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자체간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새로운 동북」의 횡적 전개도 가속화할 수 있다.

부흥청은 대지진 복구에 임하는 다양한 주체(기업·대학·NPO 등) 간의 연계를 추진하고 서로의 활동에 관한 정보공유의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새로운 동북」관민 연계 추진협의회(「新しい東北」官民連携推進協議會)를 설립했다. 재해지의 사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보, 각종 이벤트 정보를 집약한 웹사이트를 개설함과 동시에 회원이 대면해서 정보공유나 의견교환을 실시할 수 있는 장으로서 「회원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과 지원 니즈와의 매칭,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 선진적 대응의 횡적 전개 등의 계기 만들기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도에도 「새로운 동북」관민 연계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의견교환의 촉진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의 대응 상황에 맞는 면밀한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새로운 동북」의 횡적 전개를 가속화시킨다.

<강화>**【대책 39】 모델사업의 횡적 전개**

○ 재해지에서의 폭넓은 담당자 간 연계를 활발하게 하고, 복구를 위한 다양한 대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새로운 동북」관민 연계 추진협의회의 활동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지의 사업자와 창업자가 필요한 자금제공과 노하우 지원을 받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등이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적인 대응방안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였다.

※「새로운 동북」관민 연계 추진협의회 운영사업 <부흥청>
[2015년도 예산 : 5.6억엔, 부흥특회]

Ⅳ. 어린이에 대한 지원

1. 어린이에 대한 지원

다양한 형태로 재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이재민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에 관한 태스크 포스(被災者に對する健康・生活支援に關するタスクフォース)」에서 한축으로서 논의하고, 올해부터「재해를 입은 어린이의 건강・생활대책 등 종합지원사업(被災した子どもの健康・生活對策總合支援事業)」을 신설하는 등 시책을 강화했으며, 향후 이러한 시책을 현장에 착실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1) 재해를 입은 아이의 건강・생활 대책 등의 종합적인 지원

재해지의 어린이는 '마음의 케어'를 필요로 하거나 놀 곳이 적고 안심하고 생활 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안심어린이기금(安心こども基金)의 활용을 통해 재해지의 어린이가 심신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마음의 케어, 놀이터 확보 등을 지원해 왔다.

2014년도는 피난 생활의 장기화 등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 새로운 과제도 발생하고 있어,「이재민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검토를 바탕으로 「재해를 입은 어린이의 건강・생활대책 등 종합지원사업을 창설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 등을 방문해 심신의 건강에 관한 상담 지원사업, 가설주택에 사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사업의 창설과 더불어 어린이의 마음의 케어 사업과 놀이 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 대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급식 검사나 보육료 등의 감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새롭게 창설된 것으로 지자체의 활용사례의 제공 등을 통해, 이들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한다. 2015년부터 새롭게 창설한「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被災者健康・生活支援總合交付金)」으로, 계속해서 재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계속>**【대책 40】재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추진**

○ 새롭게 창설하는 이재민·생활지원 종합교부금에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 방문을 통한 심신 건강에 관한 상담·지원, 놀이기구의 설치와 어린이들의 심신 케어 등 재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방문에 대해, 2015년도에는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과 더불어 장기간의 피난생활에서 자택 등으로 귀환한 후 기존의 사업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없는 경우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재민 건강・생활지원 종합교부금(被災者健康・生活支援總合交付金)

<부흥청,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2015년도 예산 : 59억엔, 부흥특회]

(2) 마음의 케어, 학습지원 등에 관한 대응의 계속

피난생활이 3년을 넘어서면 예컨대 중학생 기간을 모두 피난생활 속에서 보내게 되는 등 어린이에게 큰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해아동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등을 위한 교직원 추가 배정 등 학교에서의 지원과 함께 어린이에 대한 학습지원, 지역주민의 학습·교류활동의 촉진(학습을 통한 재해지의 지역커뮤니티 재생사업), 학교 등에 대한 카운슬러의 파견(긴급 스쿨 카운슬러 등 파견사업)등의 사업을 계속해서 다방면의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계속〉**【대책 41】학습지원을 위한 교직원 추가 배정의 계속**

○ 지진, 원전사고의 막대한 규모에 비추어 보면 어려운 교육환경 아래에 놓여 있는 재해아동학생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마음의 케어와 섬세한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직원 추가 배정 조치. 재해 현(縣) 등으로부터 계속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계속해서 전년도와 동수의 정수(定數)배치를 실시한다.

※ 재해를 입은 아동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으로서의 교직원의 추가 배정 조치

<문부과학성> [2015년도 예산 : 22억엔, 부흥특회]

〈계속〉**【대책 42】학습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지원의 계속**

○ 학교나 공민관 등 사회교육시설도 활용하면서, 학습활동의 코디네이터와 지도 및 지원, 안전 관리 등에 종사하는 인재를 통해, 학습·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 등을 정비. 이를 통해 학습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지역 과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교육코디네이터 등을 중심으로 외부 강사, 지역의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한 학습의 장이나 방과후 및 주말 등의 학습·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해 간다.

※ 학습을 통한 재해지의 지역 커뮤니티 재생지원사업 <문부과학성>

[2015년도 예산 : 11억엔, 부흥특회]

〈계속〉**【대책 43】스쿨 카운슬러 파견 지원의 지속**

○ 재해를 입은 유아아동학생 및 교직원 등의 마음의 케어의 강화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긴급 스쿨 카운슬러 등 파견 사업(緊急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等派遣事業)」을 실시.

앞으로도 마음의 케어가 필요한 아동 학생에 대한 장기적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해지의 부흥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해 간다.

※ 긴급 스쿨 카운슬러 등 파견 사업 <문부과학성>

[2015년도 예산 : 27억엔, 부흥특회]

(3) 후쿠시마현에서의 어린이 지원

후쿠시마현에서는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감소한 어린이의 운동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놀이기구의 수선과 운동시설의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놀이 지도자의 양성 등 소프트 사업 실시를 지원, 자연체험 활동, 현 외부의 어린이들과의 교류활동 지원을 한다.

<계속> **【대책 44】 놀이기구 수선 · 운동시설정비와 놀이지도자 양성 지원**

○ 특히 후쿠시마 현에서는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감소한 어린이의 운동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재생가속화 교부금, 어린이 건강부활교부금에 의해, 놀이기구의 수선, 운동시설의 정비와 함께 놀이지도자의 양성 등 소프트사업 등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 후쿠시마 재생가속화 교부금(福島再生加速化交付金) <부흥청>
[2015년 예산 : 1,056억엔, 부흥특회]

<계속> **【대책 45】 자연체험활동, 현 외부 어린이와의 교류활동 지원**

○ 후쿠시마 현 내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와 사회교육단체 등이 실시하는 자연체험활동, 현외부 어린이들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이재민 건강 • 생활지원 종합교부금의 사업으로서 후쿠시마현의 요청과 지금까지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다.

※ 이재민 건강 • 생활지원 종합교부금 <부흥청,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2015년도 예산 : 59억엔, 부흥특회]

Ⅴ. 정보기반의 공유

1. 이재민 데이터의 플랫폼화

각 지자체의 이재민 관련 정보는 다양하고, 부서별로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응급가설주택' 입주자에 대한 속성, 건강상태와 같은 정보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재해공영주택'으로 이전하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宮城縣石巻市)에서는「재해지역 정보화 추진사업」을 활용해 가설주택 입주자의 데이터와 재해공영주택 입주자의 데이터를 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재민 데이터의 플랫폼화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1) 이재민 데이터의 플랫폼화 추진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처럼 재해지역 정보화 추진사업을 활용해 이재민 데이터의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연결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잘 모르는 지자체도 있어 이시노마키시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시정촌(市町村)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해 지자체를 방문해 이시노마키시와 나라하마치(楢葉町) 등의 이재민 지원시스템을 소개함과 동시에 2015년도에 사업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ICT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사업화에의 지원 등 이재민 데이터의 플랫폼화를 추진한다.

<계속> **【대책 46】 이재민 데이터 플랫폼화의 추진**

○ 총무성 동북종합통신국(總務省東北總合通信局)이 이와테현과 이시노마키시 등이 구축하고 있는 이재민 지원시스템에 대해 미야기현 및 후쿠시마현의 지자체에 소개. 2015년도에는 2014년도의 사업 실적 등을 감안, 계속해서 지자체에 대한 도입사례의 소개를 검토한다. 또한 ICT전문가의 활용 등에 의한 지자체의 안건형성 지원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

※ 부흥거리만들기 ICT기반 정비사업 (공공시설 등 정보통신 환경정비사업) <총무성>

[2015년도 예산 : 19.4억엔, 부흥특회]

2. 지원시책의 정보제공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났고, 복구의 단계에 맞춰 이재민 지원 요구가 다양화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재민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한층 더 섬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해지고 있다.

(1) 단계에 맞춘 정보제공의 필요성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각 지자체가 궁리를 거듭하면서 각종 매체(책자, 홈페이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응 노력에 대한 사례집 작성과 그것을 소개하는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복구 단계에 맞춘, 또한 수용자 측에서 필요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이재민을 안심시키고,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 계속해서 추진한다.

여러 기관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약 4년 동안 다량으로 축적되어 왔지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재해지에 대한 지원 시책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역할이 끝났다는 이유로 일부 종료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춘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지역에 따라 다른 상황에 맞춘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선진적 대응에 의해 성과를 올린 사례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의 전개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계속> **【대책 47】 복구의 진행에 따른 정보 제공**

○ 부흥청 홈페이지의 '이재민 지원'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이재민 지원 뉴스레터를 창간하고, 재해 지자체나 지원기관 등과의 의견교환의 장에서 관계부처의 대응 등의 설명이나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해 지자체 등과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복구의 진행에 따른 적절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

<부흥청, 관계부처>

(2) 이재민 지원 뉴스레터의 창간

이재민 지원의 강화를 위해 국가, 지자체, 지원단체 등 이재민 지원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재민 지원 소식지(被災者支援ニュースレター)」를 창간. 새로운 시책 소개, 사례소개, 지역의 토픽 등을 싣는 뉴스레터를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발간하는데 뉴스레터는 관계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한다.

<신규> **【대책 48】 뉴스레터의 발간**

○ 이재민 지원의 강화를 위해 국가, 지자체, 지원단체 등 이재민 지원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이재민 지원 뉴스레터」를 창간.

○ 지금까지의 종합시책이나 신규사업의 설명 및 각 지역에서 실시한 의견교환회의 모습, 이재민 지원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2015년도 예산의 내용, 각 부처가 실시하는 시책이나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의 사례소개 등의 게재를 검토 중. <부흥청>

(3) 향후 단계에 맞춘 정보 제공

부흥청은 2014년 5월에 국가의 지원시책과 활용사례를 정리한 「이재민에 대한 건강·생활 지원 안내서(被災者に對する健康·生活支援の手引き)」를 만들어 관계단체 등에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관계부처의 홈페이지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시정촌(市町村) 직원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지원시책에 관한 정보 등)를 보다 충실하게 마련한다.

또한 신문광고나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부흥을 위한 정보제공(東日本大震災からの被災地の復興に向けた情報提供)」에서도 건강·생활지원에 관한 정보를 일정 부분 제공한다. 나아가 후쿠시마현은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자에 대해서는 귀환·이주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계속> **【대책 49】 재해지의 부흥을 위한 정보제공**

○ 재해 3개현에서 이재민에 대한 건강·생활 지원을 포함한 부흥을 위한 대처 등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등을 실시하는 한편, 3월 초에 신문기사 광고게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에도 TV 및 라디오 정시방송 및 신문기사 광고 게재 등을 실시할 예정.

※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부흥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내각부>

[2015년도 예산 : 2.0억엔 안팎 (2014년도 예산 2.2억엔 안팎), 부흥특회]

<계속> **【대책 50】 후쿠시마현의 다른지역으로의 피난자에 대한 정보 제공**

○ 귀환 또는 이주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쿠시마현은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도는 실시 지역을 4개 도도부현에서 8개 도도부현으로 확대.

○ 뉴스레터 발행 외에도 지원정보 설명회・교류회의 개최, 전화 등에 의한 상담 대응을 실시. 2015년도에는 2014년도와 같은 계획으로 실시하고 연 말에는 전국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본 사업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전국 도도부현 및 피난자 지원단체와 공유할 예정.

※ 현 외 피난자 등의 정보지원 사업 <부흥청>

[2015년도 예산 : 1.0억엔 (2014년도 예산 1.0억엔), 부흥특회]